日本占領期 北京 똥장수의 日常生活과 糞業改革(1937-1945)

신 규 환*

目　　次

1. 머리말
2. 똥장수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1) 똥장수의 일상생활
   2) 똥장수의 질병과 의료
3. 점령하의 분업개혁과 똥장수직업분회의 성립
   1) 改進糞便事務委員會의 분업개혁
   2) 新民會의 조직과 활동
4.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1. 머리말

20세기 초 시정관리의 대상이 되었던 분뇨처리업은 1930년대 이후 시정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北平市政府가 糞業官辦의 개혁구상 속에서 사영화된 분뇨처리업을 시정부에 귀속시키려 했던 제1차 분뇨처리업 개혁안은 좌절되었지만, 1936년 6월 官督商辦의 구상 속에서 제2차 분뇨처리업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혁안에 따라 분뇨처리업은 糞商들이 주도하는 處理糞便事務所의 운영과 시정부가 주도하는 改進糞便事務委員會의 감독이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개편되었다. 제1차 개혁안 추진 당시 대규모 청원을 통해서 개혁안을 좌절시킨 바 있었던 똥장수들은 제2차 개혁안에 대해서 청원과 시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1] 고발과 맞고발, 폭동과 진압이 반복되었고, 1937년 4월 시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똥장수들의 무력시위를 진압하면서 폭동은 마무리되었다. 결국 북평시정부시기에 분뇨처리업의 개혁은 우

* 연세대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1) 본고에서 똥장수는 직접적으로는 똥장수 노동자를 지칭한다. 糞廠主는 분뇨창고 소유주로서 똥장수 노동자의 고용주이자 糞商이기도 하다. 糞道主는 분도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얻기도 했으나 대부분 똥지게를 지고 자신의 분뇨채취구역에서 일하는 자영 노동자였다.

여곡절 끝에 관독상판으로 귀결되었지만, 몇 달 후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북평시정부와 북평사회가 관독상판의 성과를 맛볼 수는 없었다.2)

1937년 7월 북평을 점령한 일본 점령당국은 1937년 12월 14일 中華民國臨時政府와 1938년 1월 1일 北京特別市政府를 수립하고, 기존 위생행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3) 분뇨처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표면적으로는 시정부가 관독상판 정책을 지속하는 듯 보였다. 분명한 것은 점령시기 북경의 분뇨처리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는 사실이다. 193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똥장수들의 시민갈취 및 태업에 대해 시민들이 시정부에 보고한 건수만 편지 50건, 전화 218건 등 총 268건에 해당되고, 이는 월평균 45건, 6개월 동안 하루에 한번 이상 (1.5회)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8년 9월, 위생국 분뇨처리업무 실무 담당자인 劉鳳祐는 똥장수들의 시민갈취에 대한 징계가 월평균 5-60여건에 달했는데, 현재는 이전과 달리 갈취가 줄었으며, 시민들은 편리해졌다고 평가하였다.4)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점령행정의 결과라기보다는 관독상판의 실시에 따른 부분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점령시기 시정부 위생국의 입장에서는 똥장수의 시민갈취와 태업문제는 분업관판이 실시되지 않는 이상, 분뇨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이른바 糞道産權이라고 불리는 분뇨처리구역에 대한 糞廠主와 똥장수의 재산권 및 영업권이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부가 이를 회수하지 않는 이상 분창주와 똥장수들의 기득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다. 분뇨처리구역을 실제로 보상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똥장수들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시민들이 분뇨처리에 대한 불만을 시정부나 처리분변사무소에 고발하지 않는 이상 똥장수의 시민갈취 문제를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시민들의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장수들의 시민갈취가 어느 정도 개선된 데에는 제2차 분뇨처리업 개혁안의 실시로 똥장수 등기, 분뇨채취구역의 등기, 분창 등기 등뿐만 아니라 신식분구의 교체, 복장규정 및 통행증 등을 통해 정식 똥장수들의 활동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식 똥장수들은 번호표가 달린 유니폼을 입었으며, 통행증을 제공받았다. 이 때문에 떠돌이 똥장수들이 정식 똥장수들의 활동구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시민갈취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번호표를

2) 북평시정부의 분업개혁에 대해서는 신규환,『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아카넷, 2008) 제8장을 참고.

3) 일본점령기 북경의 위생행정에 대해서는 辛圭煥,「日本占領期 콜레라 流行과 北京의 衛生行政(1937-1945)」,『中國近現代史硏究』51(2011. 9)를 참고.

4) 劉鳳祐,「處理糞便事務所管理糞夫槪況」,『晨報・衛生週刊』第27期(1938. 9. 21), p.7.

5)「本市糞便處置上幾個小問題」,『衛生月報』1939年 第7期, p.2.

보고 신고하면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였다.[6]

분뇨처리 문제는 북경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였으며, 일본점령기 콜레라 등 급성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분뇨처리 문제는 더더욱 긴급한 시정과제로 부상하였다.[7] 일본 점령당국이 시정을 정비하는 동안 행정공백기가 도래하자 똥장수들은 이를 이용하여 糞道의 사유화와 분창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일본점령기 북경사회는 인구증가에 따라 분뇨량도 늘어나고 있었고, 분도나 분창도 증가하였다. 반면 똥장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똥장수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점령당국은 똥장수를 조직화하여 점령당국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도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점령기 똥장수의 모습은 시정에 역행하거나 혹은 시정을 지지하는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경정부시기에도 똥장수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시기 똥장수는 대부분 조직화에 미온적이었고, 시정부의 위생개혁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에 공감할 때, 똥장수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분뇨처리에 관한 개혁방향의 스펙트럼이 이전에는 분업관판이냐 관독상판이냐에 있었다면, 일본점령기에는 분업관판, 관독상판, 私人經辦 등 그 논의범위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사용자인 분창주들에게만 새로운 활력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똥장수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점령기 똥장수 사회의 변화는 무엇보다 점령당국의 점령행정을 통한 시정노선 변화와 북경주민의 일상생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일전쟁을 통해 북경을 지배한 점령당국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민지배를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폭등하는 북경의 물가와 생활비, 전염병과 만성질환의 유행 등은 점령행정에 대한 북경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이 연구는 일본점령기 똥장수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그들이 친일조직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점령당국은 분뇨처리업의 재편과 대응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점령행정의 안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분뇨처리 문제에 대한 지속과 변주 과정을 파악하고, 일본점령기 점령행정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6) 劉鳳祐,「處理糞便事務所管理糞夫概況」,『晨報・衛生週刊』第27期, (1938. 9. 21), p.7.

7) 일본점령기 북경의 콜레라 유행에 대해서는 辛圭煥,「日本占領期 콜레라 流行과 北京의 衛生行政」,『中國近現代史硏究』51, (2011. 9)를 참고.

2. 똥장수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1) 똥장수의 일상생활

똥장수가 가족과 함께 성외구에 생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똥장수의 일상을 지배하는 공간은 糞廠이었다. 분창은 주로 성외구와 교구에 위치하였는데, 성내구와 성외구에서 수거한 분뇨를 저장, 건조, 판매하는 곳이었다. 일반적인 똥장수는 분창주가 분창 인근에 제공하는 집단 숙소에 기거하며 생활하였다.

분창주와 똥장수 사이의 중요한 거래는 매년 음력 2월과 10월에 구두로 이루어졌다. 음력 2월에 논밭에 糞乾을 뿌려야 쌀보리와 잡곡 등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고, 음력 10월은 겨울보리와 다음해 봄 농사를 위해 다시 한 차례에 분건을 뿌리는 시기이다. 보통 분뇨의 수량은 분차 대수로 계산하고, 분뇨 가격은 시가로 산정하였다. 만약 糞質이 열악하거나 糞量이 부족하면 거래는 중단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분뇨 가격의 변화에 따른 차액을 쌍방 모두 요구할 수 없었고, 음력 2월과 10월에 되어야 비로소 가격 산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 음력 2월과 10월은 분창주와 똥장수가 재계약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분창주와 계약이 파기될 수 있었다. 분창주와 똥장수 사이의 계약은 구두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분도를 가진 똥장수는 분도를 근저당으로 분창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 계약서를 長支라고 하였다. 때문에 분도는 분뇨처리업에서 중요한 재산권으로 자리 잡았다.

분창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각지의 분뇨를 수거하여 분뇨를 건조시키는데 있었다. 분뇨를 건조시킬 때, 분뇨를 담은 糞坑이 직접적으로 햇볕을 받으면 안 되었다. 분뇨의 수분이 재빨리 증발되면, 양질의 분건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대개 분뇨는 그늘에서 천천히 마를 때, 양질의 분건이 생산되었다. 분뇨 건조의 최적 시기는 날씨가 건조한 봄철이었다. 잘 건조된 분건은 약간의 회토를 섞어 분퇴 상태로 노천에 보관하는데, 비를 맞으면 분뇨에서 구더기나 벌레가 생겨 분뇨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분창경영자로서는 분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목표였다. 분창에서 잘 말린 분건은 농민들에게 판매되는데,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봄철에 구매량을 약정하고,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농민들로부터 현물을 지급받았다.[8)]

분창에는 대개 똥차와 똥장수가 기거하는 숙소가 딸려있다. 똥장수는 분창에서 지급하는 똥차를 이용하고, 분뇨수거 후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말하자면 식솔이 없는 똥장수에게 분창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직장이자 가정과도 같은 곳이다. 만약 똥장수가 분창주의 눈 밖에 난

8) 王沅,「北京市糞便問題」,『農學月刊』第8卷 3・4期合刊(1941), pp.52-53.

다면, 그들은 더 이상 똥장수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악덕 분창주를 만나면 임금체불은 다반사고, 각종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분창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장수가 생매장 당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똥장수가 분창주를 거스르는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

똥장수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하루에 50-70가구 정도였는데, 자신이 소속된 분창에 분뇨를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똥장수라도 하루에 채취할 수 있는 분뇨채취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똥장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는데, 오전 9시나 10시면 분창으로 돌아와 분뇨를 옮겨 놓고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12시에 일을 나가고 5-6시경에 귀가했다. 그러나 1930년대 분업개혁이 시작되면서 똥장수의 활동 시간은 점차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성내구와 성외구의 관청가와 상업가는 극심한 통제를 받았는데, 지역마다 오전 9시 이전에만 통행이 가능한 지역,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통행이 가능한 지역, 오전에만 통행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나뉘었다.[9)]

식사는 매일 분창에서 제공하는 면류나 잡곡류로 만들어진 조악한 두 끼니의 식사가 전부였다. 월급은 간단한 의복수선이나 목욕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향에 보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술과 도박 등에 탕진했다.

똥장수가 받는 월급수준과 생활수준은 물장수, 인력거꾼, 공장노동자들과 대체로 비슷한데, 1930년대 평균 10위안 정도를 받았다. 1932년 사회국 조사에 의하면, 북평시 똥장수의 월수입은 식사제공시 10위안, 미제공 시 15위안을 받았다. 『北平晨報』에 의하면, 1935년 똥장수의 월수입은 13-15위안이었다. 1930년대 중반 똥장수의 급여수준은 평균 6.3위안이었다. 여기에 분창주가 제공하는 기본 숙식비 3위안, 각 가정으로부터 받는 수고비, 분통세척비, 떡값 등을 더하면 10위안 내외가 될 것이다. 똥장수가 받는 급여수준은 당시 위생국 청결반원의 월급 7위안, 통계조사원 10위안, 공안국 3등 경찰 10위안 등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정부 공무원들이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것과 달리, 똥장수의 수입은 수고비와 떡값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았다. 또 분창주는 일년에 두 차례 밀린 임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분창주로부터 임금체불은 빈번하여, 똥장수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갈취에 나설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9) 이하 똥장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pp.298-300을 참고하였다.

〈표 1〉 북평생활비지수표(1926-1936)[10] 1927년=100, 銀元 대비가 계산

연도	식품	의복	방세	연료	잡비	총생활비
1926	103.7	95.3	100.0	98.2	96.3	102.0
19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28	101.5	105.3	91.3	100.4	104.7	101.6
1929	107.6	114.5	82.6	114.3	111.1	106.5
1930	111.8	113.1	82.7	116.7	114.0	109.6
1931	92.5	114.4	83.9	113.1	115.8	95.8
1932	85.4	113.4	95.6	107.1	114.7	91.2
1933	72.4	106.2	102.1	97.4	112.7	81.0
1934	69.9	99.6	109.8	98.5	112.0	79.5
1935	79.0	95.2	111.3	101.3	112.6	85.9
1936	99.5	97.1	108.2	98.6	113.2	100.2

남경정부시기(1928-1937) 동안 북평의 물가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27년을 기준으로 식품비와 의복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1940년대 북경의 물가는 1936년 대비 최소 4배(1940년)에서 최고 28배(1944년 9월)에 이를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였다. 같은 시기 동경의 물가가 최고 2배 정도 올랐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1940년대 북경의 물가폭등이 북경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을지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표 2〉 중국내외 주요도시 도매물가지수[11] 1936년=100

연도	북경	천진	동경	신경
1940	395.34	399.74	158.30	212.72
1941	451.09	450.19	167.19	234.31
1942	633.13	599.15	179.75	253.16
1943	1,197.35	893.82	190.58	281.16
1944. 6	2,156.37	1,730.96	211.19	329.50

1940년 똥장수들이 매월 받는 임금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10-15위안 내외였다. 대개는 숙박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임금 수준을 40-50위안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해도,[12] 당시 물가가 4-5배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똥장수의 월수입은 사실상 나아진 게 없었다. 더욱이 갈

10) 國立中央研究院 社會科學研究所編,『北平生活費指數月報』第8卷 12期(南京, 1936. 12), p.1.

11) 北京聯合準備銀行,『北京物價月報』, 第6卷 9期(1944. 9), p.3.

12) 王沅,「北京市糞便問題」,『農學月刊』第8卷 3・4期合刊(1941), p.58.

수록 물가는 상승해가는 추세였다.

1934년 북평시정부가 파악한 똥장수의 수는 정식 똥장수 2,000여명과 떠돌이 똥장수 1,000여명이었다.[13] 1941년 정식 똥장수는 2,027명과 떠돌이 똥장수 86명이었다.[14] 떠돌이 똥장수가 크게 줄었지만, 정식 똥장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15]

민국 초까지 북경의 인구는 70-100만명 정도였다. 1928년 베이핑시정부의 성립으로 교구가 베이핑에 포함되면서 도시인구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1930년대 초 150만명, 신중국 성립 직전 200만명까지 증가하였다.[16] 이러한 인구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식 똥장수는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山東人 동향 네트워크에 의해 장악된 똥장수 사회의 특성상 외부인의 똥장수 사회로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17] 게다가 1940년대 이후 물가폭등에 따른 사회불안 등의 요소가 작용한 까닭에 똥장수 사회는 신규 똥장수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표 3〉 북경시 각구의 똥장수 인수[18] (단위: 명)

연 도	내1	내2	내3	내4	내5	내6	외1	외2	외3	외4	외5	동교	서교	남교	북교	총계
1934	132	231	142	191	102	160	113	130	165	214	305	155	68	108	73	2,289
1940	36	48	45	76	32	62	15	20	341	359	170	294	260	63	206	2,027

〈표 3〉의 각 지역별 똥장수 수치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40년 이후, 내성구의 똥장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외성구와 교구의 똥장수가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정부가 분창을 외성구와 교구로 이전하려고 했던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내성구와 외성구에서 양질의 분뇨가 이전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북경의 인구증가로 시전체의 분뇨생산량은 증가하고 똥장수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개별 똥장수들의 수거량이 많아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떠돌이 똥장수들이 크게 증가했

13) 신규환,『국가, 도시, 위생』, pp.303-304.

14) 王沅,「北京市糞便問題」,『農學月刊』第8卷 3・4期合刊(1941), pp.59-60.

15) 1936년 북평시인구는 1,539,105명이었고, 1940년 북경시인구는 1,722,450명이었다. 北京特別市公署秘書處,『市政統計月報』第1卷 第1期(1941. 1), p.27.

16) 신규환,『국가, 도시, 위생』, p.256.

17) 똥장수의 山東人 동향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신규환,『북경똥장수: 어느 중국인 노동자의 일상과 혁명』(푸른역사, 근간)의 제2장 베이징 이주민사회를 참고.

18) 北平市衛生局,「關於糞便的收集和處理收歸市辦的密令和市政府的密令」(1934. 11. 27), 北京市檔案館 J5-1-38-1; 王沅,「北京市糞便問題」,『農學月刊』第8卷 3・4期合刊(1941), pp.59-60.

기 때문이다. 떠돌이 똥장수는 농촌에서 상경한 농민들이나 전쟁을 피해 북경에 진입한 유랑민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이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조직과 분뇨처리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분뇨를 수거해 가기도 했다. 그들이 빼돌린 분뇨는 싼값에 분창에 팔렸기 때문에, 일부 분창주에게 이익이 되었지만, 똥장수 사회 전체 입장에서 떠돌이 똥장수는 분뇨처리 체계와 가격 구조에 혼란을 초래하는 존재들이었다. 이 때문에, 정식 똥장수가 자신들의 분뇨채취구역에서 떠돌이 똥장수와 조우하게 되면,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이에 시정부는 분뇨처리 체계의 혼란과 사회갈등을 막기 위해서 떠돌이 똥장수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시정부는 별도의 법령을 반포하여 떠돌이 똥장수가 시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분창주 2명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했고, 등록 이후에는 정식 유니폼을 착용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했으며, 정식 똥장수의 영업구역을 침해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 등은 금지되었다.[19] 그러나 떠돌이 똥장수는 시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활동반경이 줄어들 수 있었고,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떠돌이 똥장수에게는 시정부 등록이 큰 의미가 있지도 않았다. 시정부가 떠돌이 똥장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점령기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똥장수의 감소로 분뇨채취량이 많아져서 똥장수의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물가폭등과 떠돌이 똥장수의 증가, 시정부의 간섭 등 똥장수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일생생활과 의료생활 등에서 그들의 일상과 건강을 보호해 줄 조직과 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 똥장수의 질병과 의료

똥장수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생활의 특징적 단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의료생활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성내구와 성외구 주민들의 의료생활에 대해서는 1920년대 중반 사회조사소가 행한 북경성내외구 48개 노동자 가구에 대한 사회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가구주들의 대부분은 인력거부(32가구, 67%)이고, 그밖에 인쇄노동자, 이발사, 경찰, 분창노동자 등이 포함된다.[20] 이들은 북경의 최하층 서민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똥장수의 생활수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똥장수는 미혼인 경우에는 분창주가 제공하는 집단숙소에서 기거하였으나 가정이 있는 똥장수는 주로 성외구에 기거하였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4.58명이고, 이들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수입은 103.26위안이

19)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編,『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二十八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1941), pp.71-72.

20) 陶孟和,『北平生活費之分析』(上海: 商務印書館, 1930), p.27.

며, 평균지출은 101.45위안이다. 월평균 17.2위안의 수입이 있고, 이 중 16.9위안을 지출하였다. 이 중 식품비가 72.25위안(71.2%), 연료비 11.48위안(11.3%), 임대료 7.63위안(7.5%), 의복비 6.94위안(6.8%), 잡비 3.16위안(3.1%)이다. 의약 및 위생비는 0.15위안(0.2%)에 불과하다.[21] 소득에 따라 의약 및 위생에 지출하는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지출규모로는 웬만해선 병원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1938년부터 1941년까지 3년 동안 북경 西北郊 院村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한 廖泰初의 보고서는 교구의 의료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원촌의 전체 인구는 92가구 518명, 남성이 263명 여성이 255명이었다. 院村 주민들이 병환을 앓게 될 때 대처하는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다. 첫째는 그냥 참는 것이었다. 특히 부녀자가 질병에 걸릴 경우 고통을 참는 것이 다반사였다. 둘째는 민간요법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 셋째는 中醫 치료인데, 원촌의 중의는 대부분 儒醫로 평시에는 先生, 郎中이라고 불렸다. 원촌 주민들은 내과치료로는 여전히 중의가 좋다는 인식이 있었다. 넷째는 西醫 치료인데, 栗씨 부자가 외과병원을 운영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환자가 왔다하면, 돈은 가져왔냐고 물어봐서 "율견적[估價栗]"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외과수술은 농민들의 신망을 얻었다. 원촌의 질병조사에 따르면, 원촌 주민들은 피부병이 49.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장병이었다. 다섯째는 神醫로 무당 등에 의존하는 것이었다.[22] 1934년과 1939년 사망자 치료상황 조사를 통해, 남경정부시기와 일본점령기 중의와 서의의 진료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34년 북평시 사망자 22,357명 중에서 중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6,517명(29.2%), 서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2,333명(10.4%), 미치료 11,008명(49.2%) 등이었다. 일본점령기 성내외구에서 중의와 서의의 치료실적이 고르게 향상되었는데, 반면 교구 주민의 96.3%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중의와 서의 치료는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의료서비스가 도심에 집중되어 이전에 비해 교구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받기 어렵게 되었다.[23] 성외구와 교구에 거주했던 똥장수는 공간구조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수준으로 보더라도 병이 날 때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부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경시민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民政部 臨時防疫局이 1908년 2월 19일과 22일 이틀 동안 북경 내외성 각 구의 사망인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를 기초로 중국인의 사망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이틀 동안의 사망인수는 남자 48명, 여자 40명 등 총 88명으로 이 중 결핵으로 사망한 자가 21명(23.86%)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뇌막염과 기관지염이 각각 12명(13.64%)과 10명(11.36%)을 차지하였다. 이 보고서상의 사망자 표본이 적지만, 사

21) 陶孟和, 『北平生活費之分析』(上海: 商務印書館, 1930), pp.32-33.

22) 廖泰初, 『一個城郊的村落社區』(發行處不明, 首都圖書館藏所藏, 1941. 11), pp.72-75.

23) 신규환, 「민국시기 의사면허제도의 성립과정과 의사의 사회적 지위」, 『東洋史學研究』 114(2011. 3), pp.172-173.

망원인의 50% 이상이 결핵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의한 것으로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치명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24)

북경시민의 사망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존 그랜트(John B. Grant: 1890-1962)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랜트는 黃子方(1899-1940)25) 등과 함께 1925년 9월 1일부터 1926년 8월 15일까지 內左二區에서 경찰서를 통해 보고받은 1,214명(이 중 98명은 미분류)의 105가지 사망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경찰서 사망보고서에서는 경련(236명), 결핵(227명), 노쇠(180명), 출산사망(59명) 등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경찰서 사망보고서 중에서 중의가 사인을 확인한 것이 539명(44.4%), 서의가 사인을 확인한 것이 189명(15.6%)이었고, 의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486명(40.0%)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서 중의에 의한 사인분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의는 결핵을 癆病 이외에, 雜癆, 血癆, 童子癆, 肺病, 久癆, 吐血, 肝癆, 酒癆, 肝熱, 血症, 血虛, 努傷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위장병과 호흡기병 역시 肝氣, 肝疾, 便血, 腹蟲病, 食積, 腹痛, 腹瀉, 邪瀉 등과 感冒, 風邪, 咳嗽, 肺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분류하였다.26)

그랜트는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사망원인을 25가지로 재분류하였다. 결핵, 기타결핵, 위장병, 호흡기병, 심장 및 신장병, 두창, 디프테리아, 성홍열, 발진성질환, 기타열병, 노쇠 및 중풍, 출생허약, 경련, 출산사망, 장티푸스, 산후병, 매독, 상처에 의한 패혈증, 간질환, 콜레라, 페스트, 외상, 복독, 기타원인, 원인불명 등이 그것이다.27) 그랜트의 1927년 보고에서는 대체로 결핵, 위장병, 호흡기병과 급성전염병이 북경인들의 주요한 사망원인이었다. 그랜트의 1929년 사망원인 조사에서는 결핵과 급성전염병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등장하였다.28) 1920-30년대 북경시민의 질병과 사망원인에 관한 각종 조사를 통해서, 북경시민들의 최대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률의 30% 이상을 상회하는 결핵으로 추정된다.29)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 동안 북평에서 사망자의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두창, 유행성뇌척수

24) 游金生,「淸末北京內外城居民死因分析」,『中華醫史雜誌』24-1(1994), pp.23-24.

25) 黃子方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생리학 학사, 위생학 및 세균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中央防疫處와 北京協和醫學院에서 근무했다. 1927년『中國衛生芻議』를 발표하여 국가의료를 공표하였으며, 1928년 北平市政府의 초대 위생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黃子方에 대해서는 신규환,「민국시기 의사면허제도의 성립과정과 의사의 사회적 지위」,『東洋史學硏究』 114(2011. 3), pp.176-177; 신규환,『국가, 도시, 위생』, pp.73-89 등을 참고.

26) Grant, J. B., Huang, T. F., Hsu, S. C., “A Preliminary Note on the Classification of Causes of Death in China”, *National Medical Journal of China*, Vol.13, no.1 (Jan. 1927), pp.1-20.

27) Grant, J. B., Huang, T. F., Hsu, S. C., “A Preliminary Note on the Classification of Causes of Death in China”, *National Medical Journal of China*, Vol.13, no.1 (Jan. 1927), pp.16-19.

28) Grant, J. B. & Fang, I. C., “Causes of Death for China”, *The China Medical Journal*, Vol.14, no.6 (June 1929), p.624.

29) Bridie J. Andrews, “Tuberculosis and the Assimilation of Germ Theory in China, 1895-1937”,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52 (Jan. 1997), p.133.

막염, 성홍열, 티푸스, 이질 등의 순이었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로 계산할 때, 결핵(279.69), 호흡기병(242.58), 경련(201.65), 설사 및 장염(75.17), 기타 원인(68.34), 기타전염병 및 기생충병(59.61), 심장 및 신장병(57.96), 산욕열(55.82) 등이고, 급성전염병 중에서는 이질(27.16), 성홍열(25.88), 양독(瘍毒, 18.45), 홍역(14.01), 두창(13.81) 등이었다.[30] 1936년 북평시의 조사에서도 주요 사망원인은 호흡기질환(15.5%), 결핵(14.1%), 노쇠 및 중풍(12.7%), 위장병(8.9%), 경련(7.3%) 순이었다.[31]

1930년대 후반 중국 12개 지역의 평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사인은 노쇠 및 중풍(156.3), 결핵(142.3), 경련(126.7), 호흡기병(122.0) 등의 순서였다.[32] 일본점령기 1938-39년 통계에 기초하여 북경의 법정전염병 상황을 살펴보면, 이질은 여전히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었고, 두창, 티푸스, 성홍열 등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콜레라 환자 및 사망자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33] 1939년 북경시 사망통계에 따르면, 사망인수 29,472명 중에서 최대의 사망원인은 노쇠 및 중풍(4,469명/15.2%), 기타위장병(4,352명/14.8%), 호흡기병(4,201명/14.3%), 결핵(3,142명/10.7%) 등이었다.[34]

남경정부시기 동안 북평에서 최대의 사망원인이었던 결핵과 호흡기병을 대신하여 일본점령기 북경에서는 노쇠 및 중풍과 기타위장병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 통계에는 직업별 사인분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운수업, 상업, 공업 직군의 주요 사망원인은 결핵, 호흡기병, 기타위장병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농업, 서비스업 직군의 주요 사망원인이 노쇠 및 중풍이고, 무직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기타위장병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35] 이 통계에 근거할 때, 교통운수업과 상업적 성격을 가진 똥장수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결핵, 호흡기병, 기타위장병 등이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똥장수들은 주요한 질병은 도시하층민의 주요한 질병인 결핵과 호흡기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일본점령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점령기에는 농민과 무직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노쇠 및 중풍과 기타위장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0) 尾河順太郎,「北支に於ける傳染性疾患」,『同仁會醫學雜誌』13-6(1939. 6), p.16.

31) 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 編印,『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二十五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 1938), 附表14.

32) 李庭安・郭祖超,「國人死因之商榷」,『國立中央大學醫科研究所公共衛生學部研究報告』 1943年 第1期(1943. 8), p.14.

33) 梅佳 選編,「民國時期北平的傳染病管理與衛生防疫」『北京檔案史料』(2003. 2), p.8.

34)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編,『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二十八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1941), 부표17.

35)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編,『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二十八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1941), pp.18-19.

실제 북경의 결핵상황은 1934년부터 1940년까지 7년 동안 연평균 3,876명의 폐결핵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연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5.8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35년으로 5,057명이 발생하였고, 사망률은 32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적었던 해는 1940년으로 3,016명으로 사망률은 175명이었다. 기타 결핵 사망자는 매년 599명으로 사망률은 37.3명이었다. 당시 해외 각국의 결핵사망률은 영국이 61명, 독일 62명, 미국 50명, 프랑스 107명, 일본 141명 등이었다.[36] 당시 경제수준이나 의료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북경의 사망률 326명이었음을 상기할 때, 중국 전역의 결핵사망률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후에는 흔히 전염병이 만연하는데, 콜레라나 발진티푸스와 같은 급성전염병 이외에도 성병과 같은 만성전염병이 만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7] 중일전쟁 직후인 북경에서도 일본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성병의 유행은 예외가 아니었다. 1937년 7월부터 1939년 6월까지 2년 동안 同仁會北京醫院 피부과비뇨기과 조사에 의하면, 전쟁 이후 1년차에 외래환자의 58.9%(707명), 2년차에 외래환자의 27.3%(605명)가 성병환자였을 정도로 1년차에는 전년대비 10배 이상 갑작스런 증가를 보였고, 2년차에는 개업의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성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년 동안 성병환자의 종류는 임질이 813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연성하감 159명(12.1%), 경성하감 및 매독 100명(7.6%), 잠복매독 93명(7.1%), 혼합하감 96명(7.3%), 제4성병 51명(3.9%) 등의 순이었다.[38]

성병환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성병 감염장소는 前門 인근이 5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중국인 公娼과 조선인 酌婦들이 집거하는 妓院이 밀집한 곳이었다. 東單牌樓 지역은 성병 감염자의 18%를 차지하는데, 이곳은 일본인 게이샤(藝者)가 집거하는 곳이었다. 그 밖의 감염경로는 북경이외의 북중국에서 12%, 만주 및 조선에서 8%, 일본에서 감염된 자가 3%를 각각 차지하였다.[39] 성병환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경찰, 군인, 사업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경찰은 관행화된 성상납을 받았고, 군인들은 기원 출입을 일종의 레저활동으로 삼았으며, 사업가들은 기원에서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전통이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평균 수준의 성병 감염률을 보였으며, 전문직종사자, 학생, 농민 중에서는 성병 감염자가 비교적 적었다.[40] 똥장수는 사회적인 기피와 차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고 공창가나 기원을 출입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감염률을 보였을 것이다.

---

36) 侯毓汶,「北京市結核病蔓延現況與其對策」,『衛生月報』第33期(1941. 11), pp.3-4.

37) 신규환,「개항, 전쟁, 성병: 한말 일제초의 성병 유행과 통제」,『의사학』17-2(2008. 12).

38) 堅山磐,「北京に於ける日支事變後二ヶ年間の性病の統計的觀察」,『同仁會醫學雜誌』 13-10(1939. 10), pp.536-537.

39) 堅山磐,「北京に於ける日支事變後二ヶ年間の性病の統計的觀察」, p.536.

40) 신규환,「近代 中國의 性病起源論爭과 性病統制: 20世紀 前半 上海와 北京을 중심으로」,『의사학』16-1, (2007. 6), pp.14-15.

일상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똥장수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직업병으로는 기생충병과 하지정맥류 등을 들 수 있다. 회충, 요충 등 기생충병은 중국 남서부 주민의 80-90%, 화북지역 주민들의 40-60%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위생에 취약한 하층민은 산토닌 복용시 회충이 100마리 이상 발견될 정도로 빈발하는 질병이었다.[41] 분변을 일상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위생관념이 분명치 않은 똥장수들에게 기생충병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었다.

하지정맥류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똥장수 노동자들에게 흔한 질병이었다.[42] 오래 서 있는 경우 하지 정맥 내의 혈압이 높아져 정맥 벽이 약해지면서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역류하여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내비치게 된다. 이럴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가 붓거나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똥장수들에게 하지정맥류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이밖에도 도시하층민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질환으로 결막염(Trachoma)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편도선비대(Enlarged Tonsils), 충치(Dental Caries) 등이 있었다.[43]

똥장수의 질병상태를 검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30-40년대 북경의 질병통계 등을 통해 추론해 보면, 일본점령기의 똥장수들은 이질이나 콜레라 등 급성전염병과 결핵, 호흡기질환, 위장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컸다. 성병이나 결막염 등도 그들을 괴롭히는 주요한 질병이었다. 특히 똥장수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는 기생충병과 하지정맥류 등이 있었다. 일본점령기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물가폭등으로 생계곤란 등은 똥장수의 삶을 피폐화시켰고, 일상생활 속에서 똥장수들은 점령정부의 시정개혁에 대한 기대보다는 의료와 복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3. 점령하의 위생행정과 똥장수직업분회의 성립

1) 改進糞便事務委員會의 분업개혁

장제스(蔣介石: 1887-1975)의 북벌군은 북벌을 완료하고 1928년 6월 북평에 북평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국민당 북평시당부는 1928년 8월 北平市糞夫工會를 조직하여 똥장수의 갈취와 횡포 등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분부직업공회가 분업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정부는 직접적인 관판으로 분뇨처리업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결국 개혁의 강행과 반

41) 尾河順太郎,「北支に於ける傳染性疾患」,『同仁會醫學雜誌』13-6(1939. 6), pp.58-59.

42) 彭紀謙,「職業病的種類和原因及救濟方法」,『衛生月報』第20期(1940. 10), pp.13.

43) T. F. Huang, “The Development of Health Centres”, *The Chinese Medical Journal* 55 (June 1939), pp.546-560.

발, 폭동과 진압 속에서 분변처리업무는 시정부가 지향했던 분업관판이 아닌 관독상판의 형태로 종결되었다. 1936년 8월 북평시정부는 개진분변사무위원회와 처리분변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시정부가 주도하는 개진분변사무위원회는 분변처리 업무의 정책방향을 담당하고, 분창주들이 주도하는 처리분변사무소가 분변처리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44]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발발에 따라 시정은 일시 중단되었다. 일본 점령당국은 1938년 1월 1일 북경특별시정부를 수립하고 시정을 재개하였다. 시정부는 기존 북평시정부의 분업정책을 계승하여 관독상판을 지속하였다. 그 핵심은 개진분변사무위원회와 처리분변사무소를 통해 분변처리업무의 감독과 운영을 이원화한 것이었다.[45]

시정부의 분뇨처리업무는 개진분변사무위원회를 통해 실현되었다. 1939년 2월 개진분변사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개진분변사무위원회는 매년 2월 전체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939년 2월 전체대회의 주요 안건은 사설화장실의 철거 및 보상안이었고, 똥장수들의 복지와 관련된 똥장수공원묘지법[糞夫公墓辦法] 처리안건 등이었다.[46]

개진분변사무위원회 업무복귀 후 첫 번째 안건은 糞廠 설립문제였다. 북경의 분창은 도시환경과 관행상의 이유로 주로 성밖의 교구지역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중 소규모 분창은 외성구인 宣武門 밖 인근에 가장 많았고, 서교지역 분창은 그 수가 적지만 규모는 가장 컸다. 서교지역 분창의 소유주는 처리분변사무소 주임을 맡고 있는 于德順으로 그는 북경의 대표적인 분창주이기도 했다.

1934년 6월까지 북평의 분창은 407개였는데, 그 중 198개가 교구에 있고, 209개가 성외구에 있었다.[47] 1940년 6월 북경의 분창은 594개였는데, 그 중 324개가 교구에 있었고, 270개가 성외구에 있었다.[48] 항일전 승리 후 분창은 662개로 증가하였으며,[49] 한국전쟁 이후에는 800여개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 이래로 북경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분변량의 증가와 더불어

44) 북평시정부의 분업개혁에 대해서는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아카넷, 2008) 제8장을 참고.

45) 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 編印, 『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業務報告』(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 1938. 12).

46) ① 사설화장실(自建厠所)의 철거 및 보상안, ② 본시 상무위원 戴恩沛의 병고 유고로 인한 鄧明德 초빙안 ③ 사무소 분구제조 및 분도문호대책안 ④ 본시 분도 및 공공화장실등기 수수료규칙안의 수정 ⑤ 사무소 이전 안건 등. 계속해서 처리분변사무소는 1938년 하반년 수입을 보고하고, 각항의 공작통계를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위원들은 아래 안건을 제기하였다. ① 분변사무소가 제출한 분부공묘판법 처리의 수정처리 ② 분변사무소 공작인원들의 월급 상향조정안 ③ 처리분변사무소가 요구한 분부 번호 및 의복 ④ 분차의 청결상태, 경찰국에서 단속 등이었다. 「改進糞便事務委員會本年首次全體會」, 『晨報』(1939. 2. 24), p.6.

47) 北平市政府衛生局 編印, 『北平市政府衛生處業務報告』(北平市政府衛生局, 1934. 9), pp.50-51.

48) 王沅, 「北京市糞便問題」, 『農學月刊』 第8卷 3・4期合刊(1941), pp.50-51.

49) 北平市政府 編, 『光復一年之北平市政』(1946. 10), p.73.

분창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북경의 분창은 594개에 달했다(1940년 6월 현재). 그 수가 적지 않았지만, 서민들의 주요 거주지인 외삼구와 외사구는 북경 최대의 소규모 분창지구이기도 했다. 도시 곳곳에 분창이 난립함에 따라 오히려 분창이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1939년 2월 개진분변사무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처리분변사무소 주임인 于德順의 주도로 「北京特別市限制糞廠開設辦法」이 시정부에 제출되었고, 1939년 4월 시정부의 비준을 통과하였다. 전문 6개조로 구성된 법안의 핵심은 성내에는 분창을 개설할 수 없고, 교외에 분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일 분뇨수거량이 분차 20대 이상이어야 개설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50] 이는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분창주의 요구와 분창의 난립을 억제하려는 시정부의 정책상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분도는 일종의 분뇨채취구역으로 원래는 매매가 불가능한 일종의 영업구역이었다. 그러나 점차 白字라는 무등기 매매계약서가 유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매가 성행하였다.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부도 소유자와 임대자 상황을 명시한 분도등기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 북평시분부직업공회가 시당부에 분뇨채취구역에 대해 보고한 바 있고, 1932년 12월 북평시정부 사회국이 분뇨채취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932년 사회국 조사에 따르면, 북평에는 27만 6천 여 호가 있고, 1도를 평균 100호로 계산하면 2,760도가 있는 셈이었다. 1도의 가치는 200-500원으로 일정치 않은데, 평균 350원으로 계산하면 베이핑시 전체의 분뇨채취구역의 가치는 96만여 원이었다. 그 밖에 400여개의 분창의 가치는 4만여 원이었다. 따라서 북평시 전체 분뇨처리업의 고정자산은 100만원 정도로 평가되었다.[51]

1940년의 조사에 따르면, 북경에는 분뇨채취구역이 1,427도가 있는데, 1도는 대체로 똥장수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많을 때는 1도가 200호를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도는 50호 정도로 추산되었다. 호당 분뇨 가치는 최하 2원에서 최고 15원이었는데, 1941년의 조사에서는 최하 10원에서 최고 30원으로 폭등하였다. 따라서 1도의 가치도 최하 500원에서 최고 1,500원에 이르렀다. 평균 1,000원으로 계산할 때, 북경의 분뇨채취구역은 1,427,000원의 가치를 지닌다. 시정부가 발급한 분차는 830여 대에 달하고, 하루 분변 수집량은 150여 톤이었으며, 공중화장실은 513개소였다. 연간 농촌에 공급하는 분건량은 2만여 톤이었다.[52] 일본점령기의 분뇨처리업계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생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50)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編,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二十八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1941), p.70.

51)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pp.290-293.

52) 「關於清潔工作概況」, 『衛生月報』 第3期(1939. 5), pp.10-11; 侯毓汶, 「北京市衛生行政現況」, 『衛生月報』 第21期(1940. 11), p.6.

개진분변사무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은 시정부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분상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이었다. 역대 시정부들은 공중화장실의 난립을 우려하여 가능하면 시정부가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39년 11월 개진분변사무위원회는 시정부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분상들에게 임대하는 법안을 논의하였고, 시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이처럼 신규 분창 개설을 제한하고, 시정부 공중화장실을 분상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은 모두 관독상판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기존 거대 분상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시정부의 분업정책이 관독상판에서 私人經辦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평가도 대두되었다. 분변처리업무가 일부 분상들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53] 이에 대해 시정부 내부에서는 분뇨처리업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독상판을 넘어서 분업관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54] 점령당국으로서는 똥장수 노동자 다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2) 新民會의 조직과 활동

남경정부시기 국민당은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28년 8월 국민당 북평시당부는 공산당과 연루된 기존 노동조직을 해산시키고 똥장수 뿐만 아니라 북평지역 노동자를 조직화하였다. 실제로 북평지역 노동자들에게 工會 가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당정강의 실현과 삼민주의의 준수 등 정치적 지향도 분명했지만, 경제생활의 개선과 임금인상 등 현실적 기대 때문이기도 했다. 1928년 북평지역 노동자 전체 81,192명 중에서 40여개 工會에 가입한 사람은 15,941명으로 공회 가입 노동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북평지역 최대 노동자 집단인 인력거부의 노동자 수가 60,000명이고, 이 중에서 공회 가입자는 60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평의 인력거부를 제외하면, 북평지역 노동자 21,192명 중에서 15,341명이 북평지역 공회에 가입하고 있었고, 일반 노동자들의 공회 가입율은 72%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電車工會 노동자 750명과 自來水工會 노동자 95명의 공회 가입율은 100%에 이르렀던 반면, 糞夫工會는 전체 분부 2,100명 중 오직 42명만이 가입하여 가입율이 2%에 불과했다.[55] 공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인상 등 노사협상에 있었는데, 똥장수들은 분부공회의 역할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다. 시정부 역시도 가입회원이 거의 없는 분부공회를 통해 분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53) 「關於淸潔工作槪況」, 『衛生月報』 第3期(1939. 5), p.10; 侯毓汶, 「北京市衛生行政現況」, 『衛生月報』 第21期(1940. 11), p.6.

54) 「本市糞便處理上幾個小問題」, 『衛生月報』 第7期(1939. 9), p.2.

55) 于恩德, 「北平工會調査」, 『社會學系』 第4卷(北平: 燕京大學社會學系, 1929. 6), pp.117-125.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점령당국은 점령행정을 지원해 줄 민간 외곽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新民會는 1937년 8월 북경에 친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北支那方面軍 特務部의 주도로 정권을 지지할 단체로 기획되었다. 1937년 12월 14일에는 汪精衛(1883～1944)의 주도로 북경에 친일적인 中華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 1937년 12월 24일 북경에서 성립된 新民會는 '反共滅黨'을 목표로 공산당과 국민당을 제거하고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일본군의 중국침략 정책을 선전하고, 점령지구의 치안을 강화할 목적에서 설립된 단체였다. 신민회는 중화민국임시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일종의 중화민국임시정부의 별동대였다고 할 수 있다. 중화민국임시정부와 신민회는 모두 북지나방면군의 지도를 받았다.[56] 신민회 회장은 중화민국임시정부의 수장인 王克敏(1879-1945)이었고, 부회장은 滿洲國 實業部 大臣과 外交部 大臣 등을 역임한 張燕卿(1898-1951)이었다. 일본군이 신민회의 창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북양군벌시기의 구관료에 의존하고 있는 중화민국임시정부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다.[57] 게다가 신민회의 반공멸당의 구호와 민생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으로 무당파인 지식인과 대중들을 '합작'으로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민회가 기본적으로 강연, 훈련, 교육, 영화, 라디오, 提燈大會, 노래경연 등 정치선전과 선전교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제사업, 직업소개, 근로활동, 의료활동 등 민생지원사업을 비중있게 전개한 이유이기도 했다.[58] 中華民國新民會北京特別市總會(이하 신민회 북경총회)는 1938년 3월 20일 성립되었으며, 회장은 북경특별시 시장인 余晉龢가 겸임하였다.

신민회수도지도부는 각 직업별로 직업분회를 조직하였다. 직업분회는 기존의 공회를 개조한 것으로 신민회는 노동자들의 가입율이 낮고 남경정부에 비협조적이었던 직종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조시키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1938년 5월 맥주직업분회[啤酒職業分會]로 이후 報夫, 糞夫, 紙煙, 火炮, 印刷, 理髮 등 총 7개의 직업분회가 순차적으로 성립되었다. 이들 직종은 대체로 공회 가입율이 낮은 직종이었다. 똥장수직업분회 주비위원으로는 于德順, 孫興貴, 李逢吉, 于安傑, 卜延齡, 常襄山, 戴思沛, 韓繼寅, 陳繼倉, 王方平, 王漢興, 馬麟 등이었다.[59] 5월 5일 西四 粉子胡同 2號 處理糞便事務所에서 분부직업분회 제1차 주비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을 총무, 교화, 선전 등으로 나누고 于德順, 孫興貴, 李逢吉 등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60] 우덕순

56) 배경한,「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政權과 新民會」,『동양사학연구』 제93집(2005. 12), pp.126-127.

57) 八卷佳子,「中華民國新民會の成立と初期工作狀況」, 藤井昇三編,『1930年代中國の硏究』(アジア經濟硏究所, 1975), p.391.

58) 新民會의 醫療・厚生活動에 대해서는 王强,「日中戰爭期における新民會の厚生活動をめぐって」,『現代社會文化硏究』25(2002. 11); 王强,『漢奸組織新民會』(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6), pp.140-148.

59)「各業分會組織近況」,『新民報』(1938. 5. 4), p.7.

은 북경 최대의 분창주로서 1930년대 이래로 처리분변사무소의 주임을 담당해왔다. 이들 주요 분창주들의 직업분회 참여는 신민회의 조직사업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고, 그 반대급부로 분창주들은 신민회와 시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5월 14일 제2차 주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미 분부직업분회 가입자가 5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61] 5월 20일에는 신민회 북경시총회 組織股가 처리분변사무소를 접수하였다. 5월 22일 中央公園 新民堂에서 정식으로 분부직업공회 성립대회가 개최되었다.[62] 신민회가 조직한 분부직업분회의 정치적 역할은 1939년 7월 20일 汪精衛의 중화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똥장수들의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63]

신민회가 처리분변사무소를 장악한 것은 시정부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분부등기, 분도등기, 분구개량, 공중화장실 관리 등 분뇨처리업무는 여전히 시정부의 관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처리분변사무소가 위생국 후생과 청결고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것은 1943년부터였다.[64] 그러나 신민회는 공중화장실의 건축 등 여전히 분뇨처리 사무에 관여하였다.[65]

분뇨처리업에 대한 신민회의 역할이 커질수록 우덕순, 손홍귀, 이봉길 등 분창주들이 신민회와의 결탁을 강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북경의 대표적인 분창주들은 대부분 일본점령기 분부직업분회의 주비위원이 되었다. 이들은 왜 점령당국에 협력했을까? 첫째, 직업분회는 똥장수들의 자치와 자결을 인정했다. 게다가 신민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전 시정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변화였다. 둘째, 점령당국은 똥장수를 위한 교육과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치 역시 점령정부 성립 이래로 똥장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었다. 신민회 수도지도부 糞夫職業分會는 1939년 1월말 報子胡同에서 제9차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子弟小學章程 및 細則」과 학교이사회[校董會]를 성립시키고, 제1소학교장을 추천하였다.[66] 이밖에도 처리분변사무소가 개진분변사무위원회에 가난한 똥장수와 질병자 치료를 위해 「救濟糞業人員苦患者治療辦法」을 제안, 시정회의에서 수정・통과되었다.[67]

이처럼 일본 점령시기 똥장수의 정치화는 점령당국의 일방적인 지시와 폭력을 동반한 강압에 의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점령당국은 똥장수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

60) 「糞夫職業分會昨開首次籌備會議」, 『新民報』(1938. 5. 6), p.7.

61) 「糞夫分會定期開成立會」, 『新民報』(1938. 5. 15), p.7.

62) 「糞夫職業分會成立大會」, 『新民報』(1938. 5. 22), p.7.

63) 「報夫等七職業分會電汪表示聲援」, 『晨報』(1939. 7. 21), p.5.

64) 「本年衛生行政的新體制及今後之設施」, 『衛生月報』 第47期, (1943. 1), p.3.

65) 「新民會北京特別市總會爲建設公厠召集討論會致社會局的函及社會局爲內二區要求建立公厠致衛生局的函」, 北京市檔案館所藏, J002-003-00873(1943. 10. 1-1943. 11. 30).

66) 「糞夫分會設子弟學校」, 『晨報』(1939. 2. 1), p.6.

67) 「救濟貧苦糞業患者治療辦法」, 『晨報』(1939. 11. 18), p.5.

에 일정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 똥장수의 조직화와 정치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4. 맺음말

일본점령기 시정부 위생국은 분업문제 해결을 위해 북평시정부의 관독상판을 계승하였으나, 분뇨처리업이 오히려 사익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독상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관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업개혁을 진행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업을 장악했던 것은 민간조직인 新民會였다. 신민회가 北支那方面軍의 지휘와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조직이라 할 수 없지만, 점령당국이 위로부터의 시정조직과는 별개로 아래로부터 민간조직을 추동해 점령행정을 보완하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특히 똥장수 등 기존에 조직화에 미온적인 직종은 점령당국의 집중적인 선전과 조직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일본점령기 북경똥장수의 일상생활과 그 변화상을 검토한 결과, 똥장수들은 폭등한 물가와 생활비로 인해 고통받았고,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경정부시기 북평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로 인한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40년대 북경의 물가가 폭등하고 생활비가 증가하자, 똥장수의 생활수준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똥장수들은 주로 결핵, 호흡기질환, 각종 소화기질환으로 고통받았다. 또한 기생충병과 하지정맥류 등도 똥장수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었다.

똥장수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켜 줄 실질적인 개선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점령당국은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분창주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똥장수들의 의료 및 교육복지 등을 지원함으로써 똥장수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였다. 그 역할은 시정부가 아닌 민간조직인 신민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민회는 똥장수직업분회를 조직하여 똥장수를 정권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신민회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치안유지 등을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업조직을 조직화하고, 시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실제로 똥장수직업분회의 경우 가입율이 저조했던 이전과 달리 다수의 똥장수들이 참여하였다. 신민회는 똥장수직업분회 등과 같은 직업조직을 조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묘 등 하층 직업조직의 생활복지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았던 똥장수들은 신민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參考文獻

1. 잡지 및 단행본 사료

National Medical Journal of China
The China Medical Journal
『同仁會醫學雜誌』(同仁會, 1928-45)
『晨報』(北京: 晨報社, 1938-45)
『新民報』(北京: 新民社, 1938-45)
『警聲』(北京: 北京警聲社, 1940-44)
『國醫衛生』(北京, 1939-43)
『華北醫藥月報』(北京, 1942-44)
『華北政務委員會公報』(1940-43)
『大衆衛生』(北平市第一衛生區事務所, 1935-37)
『衛生月報』(北京市衛生局, 1939-43)
『中華健康雜誌』(上海: 中華醫學會公共衛生委員會, 1939-1949)
『市政統計月報』(北京: 北京特別市公署秘書處, 1941-1943)
『北京市政旬刊』(北京: 北京市公署宣傳股, 1938-1945)
『北平生活費指數月報』(北平: 社會調査部, 1929-36)
『北京物價月報』(北京: 中國聯合準備銀行, 1939-44)
『上海市工人生活費指數』(上海市政府社會局, 1932)
北平市社會局 印行,『北平市商工業概況』(北平: 北平市社會局, 1932)
北平市政府衛生局 編印,『北平市政府衛生處業務報告』(北平市政府衛生局, 1934. 9)
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 編印,『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二十五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政府公署衛生局, 1938)
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編,『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二十八年度業務報告』(北京特別市公署衛生局, 1941)
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 編印,『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業務報告』(北京市處理糞便事務所, 1938. 12)
內雲山由 等著,『中華醫界の新思潮』(同仁會, 1931)
陶孟和,『北平生活費之分析』(商務印書館, 1930)
廖泰初,『一個城郊的村落社區』(發行處不明, 首都圖書館藏所藏, 1941. 11)
王沅,「北京市糞便問題」,『農學月刊』 第8卷 3・4期合刊, (1941)
于恩德,「北平工會調査」,『社會學系』 第4卷(北平: 燕京大學社會學系, 1929. 6).

李庭安, 郭祖超,「國人死因之商榷」,『國立中央大學醫科研究所公共衛生學部研究報告』 1943年第1期(1943. 8).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신규환,『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아카넷, 2008).

배경한,「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政權과 新民會」,『東洋史學研究』 제93집(2005. 12), pp.126-127.

신규환,「近代 中國의 性病起源論爭과 性病統制: 20世紀 前半 上海와 北京을 중심으로」,『醫史學』 16-1(2007. 6).

신규환,「개항, 전쟁, 성병: 한말 일제초의 성병 유행과 통제」,『醫史學』 17-2(2008. 12).

신규환,「민국시기 의사면허제도의 성립과정과 의사의 사회적 지위」,『東洋史學研究』 114(2011. 3).

신규환,「日本占領期 콜레라 流行과 北京의 衛生行政(1937-1945)」,『中國近現代史研究』 51(2011. 9).

Bridie J. Andrews, "Tuberculosis and the Assimilation of Germ Theory in China, 1895-1937",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52(Jan. 1997).

游金生,「清末北京內外城居民死因分析」,『中華醫史雜誌』 24-1(1994).

梅佳 選編,「民國時期北平的傳染病管理與衛生防疫」,『北京檔案史料』(2003. 2).

王强,『漢奸組織新民會』(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6).

王强,「日中戰爭期における新民會の厚生活動をめぐって」,『現代社會文化研究』 25(2002. 11).

八卷佳子, 「中華民國新民會の成立と初期工作狀況」, 藤井昇三編, 『1930年代中國の研究』(アジア經濟研究所, 1975).

Abstract

The Nightsoil Worker's Daily life and Health Reform in Beijing Under Japanese Occupation(1937-1945)

Sihn Kyu-hwan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nightsoil worker's daily life and the changes of life in Beijing under Japanese occupa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on 7 July 1937, Japanese troops occupied Beijing, and they established Beijing metropolitan municipality on December 1937. Beijing metropolitan municipality succeeded to the health administration of Beiping municipality, and had to accept the changes under Japanese occupation.

In spite of the health reform of Beiping municipality, nightsoil worker still extorted money from citizen or participated in the slowdown under Japanese occupation. Beijing metropolitan municipality needed new policy on the disposal of nightsoil, because the disposal of nightsoil as emerged the important matter. After the Sino-Japanese War on 7 July 1937, the nightsoil business in Beijing changed from the official supervision and merchant management into the private management of the nightsoil business. Beijing metropolitan municipality prepared the official management of the nightsoil business to solve nightsoil trouble.

As the living costs in Beijing increased, the living of the nightsoil worker gradually deteriorated. The nightsoil worker in Beijing was estimated to be suffered from tuberculosis, respiratory diseases, and other gastrointestinal diseases in 1940s. They also suffered from STD, varicose veins, and trachoma.

The Japanese occupation authorities set up a civilian organization, NPA, to disseminate pro-Japanese ideological propaganda and keep the public order. The NPA organized occupational associations such as the nightsoil worker's occupational association to conduct pro-Japanese propaganda and improve the quality of nightsoil worker's lives. Because the nightsoil worker suffered from daily life and disease, they welcomed the NPA's activity.

Keyword: nightsoil worker, Japanese occupation, the official supervision and merchant management, the official management of the nightsoil business, Beijing metropolitan municipality, living costs, cause of death, tuberculosis, NPA

주 제 어 : 똥장수, 일본점령기, 관독상판, 분업관판, 북경특별시, 생활비, 사망원인, 결핵, 신민회

(투고: 2013년 5월 2일, 심사완료: 2013년 5월 25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7일)